

여대생의 신체수치심과 외모변경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한국, 중국과 독일의 비교

홍금희

신라대학교 패션산업학부

A Study on the Variables Influencing Female College Students' Body Shame and Appearance Change Intention: Comparison of Korea, China and Germany

Keumhee Hong

Division of Fashion Industry, Silla University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make a comparison between variables influencing female college students' body shame and appearance change intention in individualist culture(Germany) and collectivist culture(Korea, China), that which variable among individual's physical character(BMI), psychological character(public self-image), and sociocultural pressure has the biggest influence in each culture. The finding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1. The German group of female college students had the highest BMI, and there were no difference between Korean and Chinese group. Public self-consciousness, sociocultural pressure, ideal appearance attitude, body shame, and appearance change intention were highest in Korea and lowest in Germany. 2. The variables that affected body shame were powerful in the order of sociocultural pressure, appearance internalization, BMI, and appearance awareness in the Korean group of female college students. In the Chinese group, the order was sociocultural pressure, appearance internalization, and public self-consciousness. On the contrary, in the German group the order was appearance internalization, appearance awareness, sociocultural pressure, and public self-consciousness. 3. The variables that affected appearance change intention were powerful in the order of sociocultural pressure, body shame, and appearance awareness in the Korean group of female college students. In the Chinese group, the order was sociocultural pressure, body shame, and appearance awareness, and in the German group, the order was appearance internalization, body shame, and BMI.

Key words: body shame, appearance change intention, BMI, perceived sociocultural pressure

1. 서 론

외모지상주의로 야기된 극단적인 다이어트와 성형수술과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지적은 그동안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논의되어 왔다.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외모변경을 하고자 하는 욕구의 배경에는 무엇보다 상업주의와 결합된 매스미디어의 영향이 큼을 부인할 수 없다. TV와 같은 매스미디어는 여성의 신체에 대한 이상화된 이미지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화시킨다. 미디어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슈퍼모델의 지나치게 날씬한 신체와 V라인의 얼굴윤곽, 서구적인 마스크는 일반 여성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기준이 현실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하여 마치 자신의 내적 기준인 것처럼 인식하도록 만든다(Heinberg, et al., 1995). 이와 같은 기준이 내면화되면 여성들

은 자신의 신체를 이상적 신체이미지의 기준에 맞추는 정도를 자신의 가치로 평가하게 된다. 그에 따라 그 사회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문화적 미적 규범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좌절감과 신체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다. 향간에 논란이 되었던 루저(loser) 파문도 같은 맥락에서 발생하였다. 남자는 180 cm 이상의 키, 여자는 44 사이즈를 고집하게 됨에 따라(“외모지상주의”, 2011), 과거 얼굴부위에 그쳤던 성형은 이제는 가슴이나 배, 팔, 허벅지, 다리 같은 신체성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미디어 속의 이상적 날씬한 미적 기준에 맞추기 위해 외모를 변경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다. 손은정(2007)에 의하면 성형의도에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인 신체 왜곡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여기서 신체왜곡이란 신체에 대한 불만이 너무 커서 자신의 신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변형, 왜곡하여 받아들이는 경향을 말한다. 그에 비하여 박은아(2003)는 개인의 심리상태보다는 눈으로 지각할 수 있는 체질량지수인 BMI가 신체존중감에 가장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Forbes and Jung(2008)도 실증적 연구 결과

Corresponding author; Keumhee Hong
Tel. +82-10-9396-4619, Fax. +82-51-999-5452
E-mail: khhong@silla.ac.kr

를 통해 그 어떤 사회문화적 이론이나 페미니스트 이론도 개인의 몸무게만큼 신체 불만족도를 더 잘 예측하지는 못한다고 하였다.

신체수치심이나 외모변경의도에 대한 개인적 특성, 즉 개인 심리상태나 신체적 특성인 BMI의 영향력에서 그 영향의 정도와 파급효과는 문화권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체면의식이 강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평가에 민감한 문화권일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외모에 대한 평가에 민감하므로 이상적 미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이 커서 신체수치심과 외모변경의도가 높을 것이다. 홍금희(2010)에 의하면 개인의 욕구를 중시하는 개인주의문화권에서는 신체수치심에 개인의 심리적 특성인 공적 자기의식(public self-consciousness)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지만, 집단적 자아가 발달한 집단주의문화권에서는 이상적 신체이미지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같은 문화권내에서도 문화적 유사점만큼이나 다양한 하위문화적 차이를 드러낼 수 있는데, 김완석, 김정식(2007)에 의하면 한중일 동아시아 3국 중에서도 한국여대생이 건강보다 외모를 더 중시하며 외모를 사회경제적 가치로 생각하는 경향이 가장 높았다고 하였다.

그동안의 대부분의 신체외식 관련 선행연구들은 사회문화적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고 신체존중감에 대한 신체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의 영향력을 비교문화적으로 살펴보기나(박은아, 2003 등), 개인의 신체적 특성(BMI)을 배제한 채 신체수치감나 불만족도에 대한 심리적 특성과 사회문화적 압력의 영향력(임숙희, 김교현, 2009; 홍금희, 2010)을 연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Forbes and Jung(2008)는 신체외식과 신체만족도를 조명함에 있어 보다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의 신체적 특성(BMI)과 심리적 특성(공적 자기의식), 그리고 날씬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이 신체수치심과 외모변경의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차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 변수들 관계에서 개인주의문화권과 집단주의문화권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 같은 집단주의문화권이라도 국가별 차이가 나는지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개인주의문화권으로 독일을, 집단주의문화권으로 한국과 중국여대생 집단을 선정하였다. 독일을 선정한 이유는 EU 국가 중 한국과 가장 교역량이 많은 나라이면서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개인주의 문화권이기 때문이다(고윤주, 2001). 그리고 중국은 남녀 평등의식이 강한 사회주의국가이지만 최근 경제부문에서 시장경제체제를 받아들여서 신체의식과 외모태도 등에서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김완석, 김정식, 2007) 한국과는 다른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국가 간의 비교문화 연구는 동서양 문화권 간의 차이는 물론 같은 동양 문화권에서도 국가 간의 신체의식의 차이를 규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글로벌마케팅 시대에 부합되는 문화권에 따른 신체의식과 패션구매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신체수치심과 외모변경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2.1.1. 신체적 특성: 체질량지수(BMI)

실제 신장과 몸무게로 계산되는 BMI는 신체불만족도 설명에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Forbes and Jung(2008)은 실증적 연구 결과를 통해 몸무게 변수가 신체불만족도를 가장 잘 예측한다고 하였다. 특히 미국 표본에서 몸무게에 대한 불만족은 다른 신체특성의 불만족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표본에서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연구자들은 그 이유로 한국의 평균 BMI가 미국보다 낮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홍금희(2006)의 한국여성들을 대상으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비만도가 신체이미지와 신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를 보면, 이상적 신체이미지에 대한 내면화가 클수록 그리고 BMI가 높을수록 신체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결과는 연령대 별로 차이를 보였다. 20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BMI가 낮아 더 날씬함에도 불구하고 30대보다 신체만족도는 낮았다. 따라서 20대의 이상적 신체이미지에 대한 높은 사회적 기대치와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이나 심리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할 수 있다.

2.1.2. 심리적 특성: 공적 자기의식

신체의식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변수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변수들 중의 하나가 공적 자기의식이다. 공적 자기의식이란 사회적 대상으로서의 자아에 대한 일반적 인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인상에 민감한 정도를 말한다(Fenigstein et al., 1975). 일반적으로 공적 자기의식이 높은 사람은 사회적 요구나 평가에 민감하기 때문에 현재 자기의 외모에 만족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는 이상적인 외모를 추구하는 경향이 높다. Thornton and Maurice(1999)의 연구를 보면 공적 자기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비교효과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여 신체불안이 높고 사회적 자아존중감은 낮았다. 홍금희(2010)의 연구에서도 공적 자기의식이 높을수록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이상적 외모에 대한 인식과 내면화가 높아 신체수치심이 높게 나타났다.

2.1.3. 사회문화적 특성: 인지된 사회문화적 압력

시대의 이상적 외모에 대한 인식은 TV와 같은 대중매체의 영향이 크다. TV매체는 극단적인 날씬한 신체이미지를 마치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신체이미지로 인식하도록 하면서 아울러 그와 같은 이상적 신체이미지에 가까워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압력을 가한다. 이와 같은 미디어의 학습효과에 의해 주변의 중요한 타자(significant others)들(가족, 친구, 이성친구 등)도 그와 같은 압력에 가세하게 된다(Stice et al., 1996). 이들의 사회문화적 압력은 날씬한 외모에 대한 사회가치를 확산시키고 이상적 외모규범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신체이미지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그에 따라 사람들은 이상적 미에 가까워

록 외모관리행동을 하게 된다. 김윤, 황선진(2008)은 미디어, 가족, 친구에 의한 사회문화적 압력이 성인여성의 미적 고정관념의 내면화와 대상화를 통해 외모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임숙희, 김교현(2009)도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날씬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이 신체불만족변수를 매개로 하여 폭식경향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다 신체불만족이 높고 과도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접근체계의 민감성이 높은 집단이 날씬함의 사회적 압력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하였다. 그에 따라 폭식에방교육도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날씬한 외모에 대한 이와 같은 사회문화적 압력은 문화권에 따라 다를 것이다. Forbes and Jung(2008)은 연구결과 한국여대생집단이 미국여대생집단보다 중요한 타자들(가족, 이성친구 등)의 이상적 외모기준에 동조하기를 바라는 압력이 더 커서 신체불만족도가 더 크다고 하였다. 홍금희(2010)의 연구에서도 개인주의문화권보다 집단동조가 큰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날씬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이 더 컸다. 그리고 사회문화적 압력 중에서는 가족, 친구 및 이성친구의 압력보다 특히 미디어에 의한 압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2. 이상적 외모태도와 신체수치심 및 외모변경의도

미디어 속의 극단적인 날씬한 신체이미지를 실제 이미지로 인식하여 내면화 할수록 자신이 그 기준에 맞추지 못한다면 신체수치심을 느끼고 신체불만족도 높아질 것이다(Heinberg et al., 1995; Mckinley & Hyde, 1996). Stice et al.(1994)은 단순히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보다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를 내면화하는 정도가 신체불만족과 더 연관이 높다고 하였다. 손은정(2007)도 연구결과 공격 자기의식이 높을수록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가 높아 신체에 대한 감사가 높았으며, 그 결과 신체왜곡을 통해 성형의도가 높았다고 하였다. 특히 신체왜곡은 성형의도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변수였다. 그리고 홍금희(2010) 역시 공격 자기의식과 인지된 사회문화적 압력이 높을수록 이상적 외모에 대한 인식과 내면화가 높았으며, 이상적 외모에 대한 인식과 내면화가 높을수록 신체수치심이 높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상적 외모를 인식하고 내면화할수록 신체수치심을 느끼며 그 결과 외모변경의도가 높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2.3. 문화권에 따른 신체수치심과 외모변경의도

Sun et al. (2009)에 의하면, 집단주의문화권인 중국에서 공격적 외모는 곧 체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복행동에 권력지위와 사회의 집단소속감을 반영한다고 하였다. 박은아(2003)는 한국 여대생은 개인의 심리상태보다는 눈으로 드러나는 신체비만도(BMI)가 신체존중감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타인의 시선외식 정도가 미국여대생보다 더 높았다고 하였다. Jung and Lee(2006)의 연구에서도 한국 여대생들은 미국여대생들보

다 외모를 더 중요시하며 신체에 대해 보다 비판적이고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였다. Wardle et al. (2006)의 22개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신체이미지와 체중조절행동에 대한 연구를 보면, 한국 여대생들은 이들 국가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몸무게가 가장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몸무게를 조절하려는 노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김완석, 김정식(2007)에 의하면,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의 신체가치관과 신체존중감 비교 연구에서 한국여대생이 3국 중에서도 외모존중감은 가장 높으면서 건강존중감은 가장 낮아 건강보다 외모를 중시하는 신체편향성이 가장 높았다. 그에 따라 연구자들은 한국여대생들은 외모를 사회경제적 가치로 생각하는 자본주의적 신체가치관이 3국 중에서 가장 높다고 해석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보면, 집단주의문화권과 개인주의문화권은 신체의식이나 신체가치관에서 차이가 나며 집단주의문화권에서도 하위문화권인 나라에 따라 다시 차이가 나는데, 특히 한국은 외모존중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 방법

3.1.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신체수치심과 외모변경의도에 BMI와 공격 자기의식과 인지된 사회문화적 압력 및 이상적 외모태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본다.

연구문제2: 문화권에 따라 이들 변수들의 영향력이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본다.

부가적으로 문화권에 따른 외모관리행동도 알아본다.

3.2. 측정도구

1) BMI(Body Mass Index): 신체질량지수로 신체비만도를 나타낸다. 계산방법은 몸무게kg/키(m)²이다. BMI가 18.0이하이면 수척으로, 18.1~24.9이면 정상으로 25.0 이상이면 비만으로 판정한다.

2) 공격 자기의식: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평가에 민감한 정도를 말하며, Feningstein et al.(1975)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나는 내가 일하는 방식에 신경을 쓰는 편이다', '남들에게 나를 어떻게 보여주어야 하는지에 신경을 쓴다' 등의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4문항이다. Cronbach's α 로 계산한 신뢰도계수는 .77이다.

3) 인지된 사회문화적 압력: 미디어, 가족, 친구 및 이성친구로부터 이상적 외모기준을 충족시키도록 압력을 받는 정도를 말한다. Stice et al. (1996)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나는 TV나 잡지를 보면 살을 빼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다', '나는 가족들(친구, 이성친구)로부터 살을 빼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다'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4문항이다. 신뢰도 계수는 .85이다.

4) 이상적 외모태도: 이상적 신체이미지를 인식하고 내면화하는 정도를 말한다. Heinberg et al.(1995)의 외모에 대한 사회

문화적 태도 중 외모내면화와 외모인식 요인으로 측정하였다. 외모내면화는 '나는 잡지나 TV에 나오는 여자들의 몸매와 내 몸매를 비교하는 경향이 있다' 등의 5문항이며, 외모인식은 '우리 문화에서 출세하기를 원한다면 매력적인 외모는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의 우리 문화에서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외모와 몸매관리를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등의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상적 외모내면화와 이상적 외모인식의 신뢰도계수는 .89와 .76이다.

5) 신체 수치심: 이상적 신체이미지인 문화적 신체표준과 자신의 신체를 비교할 때 느끼는 수치심 정도를 말하며, Mckinley and Hyde(1996)의 측정도구에서 '외모를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내가 한심한 사람처럼 느껴진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 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창피하게 여겨진다' 등의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신뢰도 계수는 .87이다.

6) 외모변경의도

이상적 신체이미지인 문화적 신체표준에 가깝게 자신의 신체를 변경하고자 하는 의도로 '나는 내 외모를 바꾸고 싶다'의 1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상의 모든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신뢰도계수는 모두 .75 이상으로 신뢰할만한 높은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었다.

3.3. 설문지 조사의 자료 수집과 표본 특성

비교문화연구를 함에 있어 측정도구의 번역으로 인한 해석의 오류를 막기 위하여 역번역(backtranslation)을 하였다. 독일어 설문지의 경우에 영어, 한국어, 독일에 능통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먼저 영어로 된 원문항을 해당 언어로 번역한 다음 이를 다시 영어로 역번역하여 원문항과 대조하였다. 중국어 설문지의 경우도 완성된 한국어 설문지를 바탕으로 한국어와 중국어에 능통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같은 방법으로 대조하였다.

완성된 설문지는 다시 해당 문화권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조사(test-retest)를 거친 후에 본 조사에 착수하였다.

조사대상은 양 문화권 모두 현재 대학 재학 중인 여대생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은 2009년 12월에서 2010년 3월에 걸쳐 편의표본 추출법으로 한국의 부산지역과 독일의 베를린 지역, 중국의 청도지역에서 이루어졌다. 자료수집 결과 독일 여대생 집단은 총 150부가, 한국여대생 집단은 총 177부,

중국여대생집단은 중국 청도 지역에서 150부가 수집되어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령분포는 한국은 18~26세, 중국은 18~24세, 독일은 18~29세이다.

4. 연구결과 및 분석

4.1. 국가별 BMI의 비교

세 국가의 평균 키, 몸무게, BMI를 one-way ANOVA검증을 한 결과 <표 1>과 같다. 세 국가 중, 독일여대생 집단이 몸무게와 키, BMI(20.89)가 가장 높았다. 이에 비하여 한국과 중국여대생 집단 간의 BMI는 차이가 없었으나 중국여대생 집단이 키가 더 컸다.

Table 1. 국가별 BMI의 차이

국가 변수	몸무게	키	BMI
독일	58.91a	167.87a	20.89a
한국	51.37b	161.65c	19.68b
중국	51.68b	163.08b	19.43b
F 값	68.428***	65.185***	21.938***

*** p<.001

4.2. 관련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표2>와 같다. BMI와의 관계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개념들은 모두 p<.001 수준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공적 자기의식이 높고 이상적 외모의 인식과 내면화가 클수록 사회문화적 압력이 높았으며 그에 따라 신체수치심과 외모변경의도가 높았다. 이에 비하여 BMI는 다른 변수들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사회문화적 압력과 외모변경의도 변수와는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BMI가 높을수록 살을 빼야 한다는 사회문화적 압력을 많이 받았으며 외모변경의도도 높았다.

4.3. 국가별 신체수치심과 외모변경의도에 대한 관련변수들의 영향

국가별 관련변수들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3>의 모든 변수

Table 2. 본 연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변수	BMI	공적 자기의식	사회문화적 압력	이상적 외모내면화	이상적 외모인식	신체 수치심
공적 자기의식	-.04					
사회문화적 압력	.24***	.37***				
이상적 외모내면화	.03	.46***	.62***			
이상적 외모인식	.03	.29***	.25***	.41***		
신체수치심	.05	.28***	.68***	.67***	.32***	
외모변경의도	.16***	.37***	.62***	.65***	.31***	.65***

*** p<.001

Table 3. 국가별 관련변수들의 차이

국가	변수	공적 자기의식	이상적 외모내면화	이상적 외모인식	사회문화적 압력	신체 수치심	외모변경 의도
독일		11.68c	11.63c	10.43b	7.21c	11.33c	2.52c
한국		15.01a	17.12a	12.17a	11.69a	17.49a	3.85a
중국		13.63b	13.15b	8.77c	9.51b	14.42b	3.24b
F값		77.23***	70.55***	85.35***	57.72***	74.31***	67.18***

*** $p < .001$

Table 4. 국가별 신체수치심에 대한 관련변수들의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신체수치심					
			독일		한국		중국	
	β	t	β	t	β	t	β	t
BMI	-.05	.79	-.19	-2.59**	.05	.64		
공적자기의식	.24	3.59***	-.01	-.10	-.18	-2.55*		
사회문화적 압력	.21	3.01**	.46	5.28***	.37	4.16***		
이상적 외모내면화	.35	4.74***	.30	3.74***	.31	3.74***		
이상적 외모인식	.25	4.03***	.13	2.01*	-.11	-1.51		
R ²	.51		.45		.35			
F값	31.07***		25.62***		17.24***			

*** $p < .001$ ** $p < .01$ * $p < .05$

에서 한국은 공적 자기의식, 이상적 외모태도와 이상적 신체이미지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 신체수치심 및 외모변경의도 모두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중국 여대생집단은 이상적 외모인식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에서 독일 여대생집단보다 높았다. 이 결과는 독일여대생집단은 날씬한 외모를 이상적 신체이미지로 인식하지만 그렇다고 날씬한 외모를 자신의 신체이미지 기준으로 삼고 내면화하는 정도는 중국여대생 집단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 집단주의문화권의 여대생들이 개인주의문화권의 독일여대생들보다 공적 자기의식이 높으며 이상적 외모내면화가 더 높고 날씬한 외모에 대한 압력을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체수치심에 대한 BMI, 공적 자기의식, 사회문화적 압력, 외모내면화, 외모인식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4>와 같다.

신체수치심에 독일여대생집단은 이상적 외모내면화, 이상적 외모인식, 공적 자기의식, 사회문화적 압력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에 비하여 한국여대생집단은 사회문화적 압력과 이상적 외모내면화, BMI, 이상적 외모인식 순으로 영향을 미쳤고, 중국여대생집단은 사회문화적 압력, 이상적 외모내면화, 공적 자기의식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개인주의문화권인 독일여대생집단의 신체수치심에 이상적 외모 내면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Stice et al. (1994)의 연구에서 단순히 미디어에 노출된 것보다는 개인이 이상적 미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내면화하는 정도가 신체불만족과 더 연관이 높았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이에

Table 5. 국가별 외모변경의도에 대한 관련변수들의 영향력

독립변수	종속변수		외모변경의도					
			독일		한국		중국	
	β	t	β	t	β	t	β	t
BMI	.13	2.04*	.28	3.59***	.08	1.05		
공적 자기의식	-.09	-1.18	.05	.79	.16	2.28*		
사회문화적 압력	.04	.47	.33	3.36***	.27	3.04**		
이상적 외모내면화	.49	5.66***	.27	3.15**	.15	1.84		
이상적 외모인식	-.02	-.34	.12	1.67	.18	2.48*		
신체수치심	.25	2.74**	-.04	-.50	.20	2.52*		
R ²	.45		.45		.41			
F값	19.15***		19.27***		18.03***			

*** $p < .001$ ** $p < .01$ * $p < .05$

비하여 집단주의문화권인 한국과 중국의 여대생 집단은 사회문화적 압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미적인 규범에 대한 압력이 크며 그에 따라 자신이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을 때에는 신체수치심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특이한 결과로 한국여대생집단은 BMI가 낮을수록 오히려 신체수치심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홍금희(2006)의 연구에서 BMI가 낮은 20대가 BMI가 높은 30대보다 신체만족도가 낮았던 결과와 맥락이 같다. 따라서 BMI가 낮을수록 오히려 외모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치로 인해 신체수치심이 더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여대생집단에서는 공적 자기의식이 약하게 신체수치심에 부적인 영향을 미쳐 공적 자기의식이 높을수록 오히려 신체수치심이 낮아졌는데, 중국여대생의 경우에 다른 사람의 평가에 민감할수록 높은 체면의식으로 오히려 그에 부응하는 외모관리행동을 하여 그 결과 신체수치심이 낮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5>는 국가별 외모변경의도에 대한 관련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본 것이다. 표에서 보듯이 외모변경의도에 독일여대생 집단은 이상적 외모내면화, 신체수치심, BMI 순으로, 한국여대생집단은 사회문화적 압력, BMI, 이상적 외모내면화 순으로, 중국 여대생집단은 사회문화적 압력과 신체수치심, 이상적 외모인식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외모변경의도 역시 개인주의 문화권인 독일은 이상적 외모내면화의 영향이 가장 큰 데 비하여, 집단주의문화권인 한국과 중국여대생 집단은 사회문화적 압력

의 영향이 가장 컸다. 즉 개인주의문화권에서는 외모변경의도에서도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 가장 컸으나, 집단주의문화권에서는 사회문화적 압력이 가장 영향이 커서 문화권의 특성 상 집단의 미적 규범에 대한 동조 경향이 개인적 특성보다 더 영향이 클 수 있다. 박은아(2003)의 사회문화적 압력을 고려하지 않고 조사한 연구에서 한국여대생집단은 신체존중감에 심리적 변수보다는 신체비만도(BMI)가 더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지만, 본 연구결과는 날씬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이 BMI보다 더 큰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신체외모에 대한 연구는 심리적 변수와 신체적 변수 외에 사회문화적 변수도 고려해서 다차원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정확한 원인규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Forbes & Jung, 2008).

<표5>에서 외모변경의도에 대한 BMI의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일여대생집단은 BMI보다 이상적 외모내면화와 신체수치심이 더 큰 영향을 미쳐, 뚱뚱하다고 해서 외모변경 의도가 높은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이상적 외모에 대한 내면화 정도가 외모변경의도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하여 한국여대생은 BMI가 직접적으로 외모변경 의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는 한국여대생집단이 독일여대생 집단보다 더 날씬함에도 불구하고(평균 BMI가 19.68에 불과) 여전히 BMI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자신의 몸무게가 날씬한 신체이미지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BMI가 한국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중국여대생집단의 경우는 BMI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 날씬한 신체이미지의 기준인 키와 몸무게에 대한 집착이 한국여대생집단보다 덜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4.4. 국가별 외모관리행동

<표6>에서 국가별 외모관리행동을 보면 독일여대생집단이 정기적인 운동, 유행의복으로 외모관리, 피부관리 항목에서 3국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표3>에서 독일여대생 집단의 이상적 외모내면화(잡지나 TV의 이상적 신체이미지를 이상적 신체기준으로 내면화하는 정도)가 가장 낮았던 결과와는 마치 다른 결과처럼 보인다. 그러나 외모관리행동의 항목에서 보듯이, 이들은 건강한 신체외모를 가지고 운동이나 유행의복, 피부관리 등과 같은 일상적인 관리를 통해 외모관리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슈퍼모델과 같은 극단적인 신체이미지추구가 아니라 건강증진에 보다 관심을 갖는 신체외모를 반영하였다.

이에 비하여 한국여대생집단은 체중조절을 위한 약물복용이나 성형수술에서 빈도는 낮았지만 상대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중국여대생집단은 체중조절 약물복용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외모관리에서 3국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역시 한국여대생들은 신체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커서 건강증진보다 외모증진에 더 집중한다고 한 김완석, 김정식(2007)의 언급을 지지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통해 결론을 내리면, 신체수치감과 외모변경의도에서 한국여대생집단이 3국 중에서 날씬한 이상적 신체이미지인 미적 기준에 대한 집착이 가장 높았으며, 여기에는 날씬함에 집착하게 하는 미디어, 가족, 친구 등의 사회문화적 압력이 크게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중국여대생집단도 집단주의문화권의 특성상 공격적 자기의식이 높고 서구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아 날씬한 외모에 대한 압력을 받았지만 한국만큼은 높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체를 사회경제적 가치로 생각하는 자본주의적 미의식이 기존의 체면의식과 높은 집단동조로 인해 날씬한 외모 추구 경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개인주의 문화권인 독일여대생집단은 건강한 신체외모로 일상적인 외모관리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집단은 신체수치심과 외모변경의도를 느끼더라도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태도에 의한 것이지 사회문화적 압력의 영향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개인의 신체적 개성이 보다 존중됨을 알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신체수치심과 외모변경의도에 개인의 신체적 특성(BMI)과 심리적 특성(공적 자기의식), 그리고 사회문화적 압력 중 어느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개인주의문화권(독일)과 집단주의문화권(한국, 중국)을 대상으로 비교 연구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BMI는 독일여대생집단이 가장 높았으며, 한국과 중국여대생 집단은 차이가 나지 않았다.
2. 공적 자기의식, 사회문화적 압력, 이상적 외모태도, 신체수치심, 외모변경의도에서 한국여대생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신체수치심에 독일여대생집단은 이상적 외모내면화, 이상적 외모인식, 사회문화적 압력, 공적 자기의식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에 비하여 한국여대생집단은 사회문화적 압력과 이

Table 6. 국가별 외모관리행동의 차이

국가	변수	정기적인 운동	다이어트	유행의복 구입	메이킹	피부관리	체중조절 약물복용	성형수술
독일		4.37a	4.07a	4.73a	4.70a	5.02a	1.02b	1.07b
한국		2.72b	3.21a	4.33b	4.40a	4.37b	1.60a	1.99a
중국		2.97b	2.33c	3.67c	3.15b	3.81c	1.43a	1.07b
F값		48.56***	45.0***	17.86***	30.33***	20.74***	14.64***	41.20***

*** p<.001

상적 외모내면화, BMI, 이상적 외모인식 순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중국여대생집단은 사회문화적 압력, 이상적 외모내면화, 공적 자기의식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3. 외모변경의도에 독일여대생집단은 이상적 외모내면화, 신체수치심, BMI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한국여대생집단은 사회문화적 압력, 이상적 외모내면화 순으로, 중국여대생집단은 사회문화적 압력과 신체수치심, 이상적 외모인식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4. 외모관리행동은 독일, 한국, 중국 순으로 높았다. 독일은 운동, 유행의복 및 피부관리 등 일상적인 외모관리행동을 하였으나, 한국은 낮은 빈도이긴 하지만 성형수술, 체중조절을 위한 약물복용 등 극단적인 외모관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신체수치심과 외모변경의도와 같은 신체 의식을 설명함에 있어 개인의 신체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 그리고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포괄적인 접근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선 신체수치심과 외모변경의도는 문화권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그 차이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변수는 날씬한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 변수로 나타났다. 즉 개인주의문화권보다 집단주의문화권에서는 문화적 특성 상 그 사회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미적 규범인 날씬한 외모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이는 외모를 사회적 관계와 인정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집단주의문화의 특성을 반영한다. 그에 따라 BMI가 높은(뚱뚱한) 개인의 신체 특성을 개성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일률적인 날씬한 이상적 외모를 강요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같은 집단주의문화권에서 한국과 중국여대생집단 간의 신체적 특성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변수는 BMI로 나타났다. 신체수치심과 외모변경의도에 중국여대생집단은 BMI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한국여대생집단은 유의한 높은 영향을 미쳐 차이를 보였다. 실제 한국여대생집단은 수척체형의 비율이 중국여대생집단보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BMI의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난 것은 여러 가지를 시사한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여대생들이 44 사이즈와 같은 신체수치를 이상적 체형으로 정해놓았다면 이는 쉽게 달성할 수 없는 목표임으로 신체수치심과 외모변경의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건강보다는 보기에 좋은 외모증진에 치중하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분위기는 충분히 날씬함에도 불구하고 신체불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극단적인 방법(극심한 다이어트나 체형수술 등)을 동원해서라도 소위 워너(winner) 기준을 맞추고자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한국의 젊은 여성집단의 날씬함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관련 전문가들은 위험수준이라고 진단하고 있다(“외모지상주의”, 2011). 따라서 타인을 비교기준으로 삼아 이상적 신체이미지에 집착하기보다는 신체에 대한 주체적인 의식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고, TV매체를 중심으로 건강한 신체이미지와 외모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편의표본추출법으로 자료수집이 이루어져 도시간의 차이가 고려되지 못하였으므로 연구결과의 확

대해석에는 신중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고윤주. (2001). 청소년기 초기의 부모-자녀 및 친구관계-집단주의와 개인주의 개념을 적용한 한국과 독일 비교연구. *한독 교육학 연구*, 6(1), 1-18.

김완석, 김정식. (2007). 동아시아 여대생들의 신체가치관과 신체존중감: 한국, 중국, 일본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3(4), 113-134.

김윤, 황선진. (2008). 사회문화적 압력과 대상화된 신체적 이미지가 성인 여성의 외모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복식*, 58(10), 112-122.

박은아. (2003). 신체적 존중감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문화 연구: 한국과 미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2(2), 35-56.

손은정. (2007). 공적 자기의식,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면화 및 신체상에 대한 태도가 성형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1), 63-81.

임숙희, 김교현. (2009). 날씬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력이 여대생들의 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신체불만족의 매개효과와 행동접근 체계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1), 853-869.

외모지상주의 10대들이 위험하다. (2011, 01. 10). *주간조선*. pp. 90-92.

홍금희. (2006). 외모의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비만도가 신체이미지와 신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산업학회지*, 8(1), 48-54.

홍금희. (2010). 공적 자기의식과 사회문화적 압력이 이상적 외모태도와 신체수치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문화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4(10), 1731-1741.

Fenigstein, A., Scheier, M. F., & Buss, A. H. (1975).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Assessment and theor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3(4), 522-527.

Forbes G. B., & Jung, J. (2008) Measures based on sociocultural theory and feminist theory as predictors of multidimensional measures of body dissatisfaction among Korean and U. S. college wome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7(1), 70-103.

Heinberg L. J., Thompson, J. K., & Stomer S. (199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s appearance questionnair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s*, 17(1), 81-89.

Jung, J. & Lee, S. (2006). Cross-cultural comparisons of appearance self-schema, body image, self-esteem, and dieting behavior between Korean and U. S. women.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Research Journal*, 34(4), 350-365.

Mckinley N. M., & Hyde J. (1996). Th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0, 191-215.

Stice, E., Schupak, N. E., Shaw, E. H., & Stein, R. I. (1994). Relation of media exposure to eating disorder symptomatology: Examination of mediating mechanism.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3, 836-840.

Stice, E., Ziemba, C., Margolis, J., & Flick, P. (1996). The dual pathway model differentiates bulimics, subclinical bulimics, and controls: Testing the continuity hypothesis. *Behavior Therapy*, 27, 531-549.

Sun, T., Horn, M., & Merritt, D. (2009). Impacts of cultural dimensions on healthy diet through public self-consciousness.

Journal of Consumer Marketing, 26(4), 241-250.

Thornton, B., & Maurice, J. (1999). Physique contrast effect and the moderating influence of self-consciousness. *Sex Roles*, 40, 379-393.

Wardle, J., Hass, A., & Steptoe, A. (2006). Body image and weight

control in young adults: International comparisons in university students from 22 coun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Obesity*, 30(4), 644-651.

(2011년 1월 19일 접수/ 2011년 3월 25일 1차 수정/
2011년 3월 25일 게재확정)
